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보는 것은 이제 흔한 일상이 된지 오래다. 식당이나 마트에만 가도 쉽게 볼 수 있다. 과거 내가 일하던 건설현장에서도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아직 차갑기만 하다.

과거 나는 오랫동안 건설업계에 몸담으며 외국인노동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 그들을 통해서 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건설노동자로서 나 역시 몇 차례 차별을 겪으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

언젠가 업무 후 건설현장에서 다소 떨어진 시내 중심가에서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했을 때였다. 식사시간이 늦었던 우리는 부랴부랴 시간을 맞추기 위해 작업복도 환복을 하지 못한 상태로 곧장 식당에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나오더니 우리의 입장을 막아섰다. 더러운 작업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입장을 제한 당했던 것이다. 식당의 주 고객층인 젊은이들이 꺼려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거참, 작업복 입었다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음식점이 여기뿐인가! 우리 다른 데로 갑시다!”

이 상황이 황당했는지, 공사과장은 투덜대면서 다른 식당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다행히 다음에 찾아간 식당에서는 입장이 허용되었지만, 그 식당 주인도 우리의 작업복이 마음에 걸렸는지 창가나 중앙의 좋은 자리들을 놔두고 하필이면 구석 자리를 배정해 주었다.

“뭐야. 이렇게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 건가? 먼지 묻은 작업복을 묻었다는 이유로? 정말 너무들 하네.”

공사과장은 이번에 단단히 화가 난 듯 보였다. 나 역시 단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철저히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다.

그 일이 있는 후부터였다. 신기하게도 평소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야, 베틀콩! 너 이리 와 봐! 그리고 그 옆에 똥남아, 너도 같이 와!”
어제 식당 주인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기분 나빠하던 공사과장이 정작 건설 현장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을 각각 베틀콩, 바퀴스탄, 똥남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공사과장은 처음부터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멸시적인 호칭을 대놓고 사용해 왔었다. 나 역시도 이전까지는 그 호칭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무시라거나 차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차별을 당하고 보니, 인권을 무시당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마음이 비로소 이해가 됐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라는 노래가사처럼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니 상황이 객관적으로 또렷하게 보였다.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무시하는 행태는 비단 호칭뿐만이 아니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일하는 경우도 많았다. 공사 현장에는 분명히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공사과장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따로 쉴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라도 하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너희들 아니어도 일할 사람들 많아. 줄 섰어~.”라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곰곰이 되짚어 생각해보니, 과거 내가 일했던 다른 현장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번은 지방의 깊은 산중에서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2인 1조로 숙소를 얻어준 반면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비용절감을 위해 터무니없이 많은 인원을 한 숙소에 몰아넣었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을 보름에서 한두 달 정도까지는 곧바로 지급하지 않고 묶어두기도 했다.

그들은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더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상황을 감내해야 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은 미등록 취업자인 경우가 많아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폭언과 폭행, 과중한 업무와 차별 대우, 임금 체불 등으로 인권을 유린당해도 변변히 항의 한번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까 두려워 대부분 신고를 기피하고 체념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와 같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권 사각지대에서 갖가지 부조리한 상황에 놓여 신음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지만, 때때로 피부색이나 국적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로부터 소중한 인권을 짓밟히기도 한다. 우리의 차별적인 시선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열악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 현실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 지역, 국적,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해 있다. 당

장 아무 시골마을이나 가 봐도 몇 집 건너 한집이 다문화가정을 이뤄 살아가고 있고, 하우스 농사의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 주체 중 하나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을 더 이상 우리와 다른 이방인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우리와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으로서 바라보고 차별에 신음하지 않도록 존중해주어야 할 것이다.